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들의 2011년 ▶3면에 계속

문화·경제·의료... 각계 두각 지역에 희망의 씨앗 뿌리다



박흥근

올 한해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맹활약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귀감이 된 이들이 있다. 불굴의 투지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스타, 문화수도에도 걸맞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쓴 건축사, 불황 속에서도 기술력 하나로 무한경쟁을 이겨낸 중소기업인, 소외된 이들을 가족의 정으로 안은 사회운동가와 의사 등이 그들이다.

광주·전남의 뉴 파워 인사들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줬다. 광주일보가 지난 4월20일 창사 59주년을 맞아 선정한 '광주·전남 뉴파워 59인' 가운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17인을 다시 조망한다.



김기영

박흥근-도시재생 새 길 열어
김기영-플랜트 설비 전국 1위
국훈-지역의료연구 수준 높여
조억헌-光銀 사회공헌 이끌어
박정환-바둑 세계제패 쾌거



국훈

박흥근(50) 건축사는 제4회 광주디자인인베네날레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어반폴리'의 지역작가로 선정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세워진 프란시스코 사신의 작품 등 2개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이어 '광주사적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솔감독으로 선정됐다. 5명의 작가들과 함께 내년 5월 5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가협회 총무로도 활동하며 광주·전남북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건축문화 사랑' 편집장도 맡고 있다. 참여자치 21 운영위원,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전문위원 등 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건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억헌

최악의 건설경기 속에 설비건설업으로 3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 1위를 거머쥔 뉴파워도 있다. 순천의 중견 플랜트 설비업체 삼창E&C(주)의 김기영(64) 대표다. 김 대표는 국내 건설에만 연연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알제리·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잇따라 플랜트 공사를 수주, 해마다 10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지역 업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위의 기성실적을 냈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전남도 우수 시공사 등으로 선정됐다.



박정환

소아암 권위자인 국훈(51) 화순전남대 병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기반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의료봉사와 해외 의료관광의 질적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원장은 취임 후, 스페인 나바라대학 부설 CIMA연구소와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구중심병원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봉사는 기본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설, 해외환자를 유치했다.

광주은행 조억헌(52) 부행장은 정관계와 금융계 등에 두루 인맥을 가진 금융계 마당발로서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을 지역친화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정서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설치한 '사회공헌사무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회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광주출신 프로 바둑기사 박정환(18)의 세계 제패는 지역민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광주 아시아게임 2관왕과 국내 최연소 입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정환 9단은 제24회 후지쯔배에서 우승하며, 첫 세계대회 제패의 쾌거를 이뤄냈다. 그는 특히 후지쯔배 최연소(18세 7개월) 우승기록을 세우고, 바둑왕전과 GS칼텍스배에서도 패권을 차지하며 바둑 꿈나무들의 영웅으로 부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1년은 가계가 느끼는 고통(가계고통) 정도가 역대 3번째로 심해진 해로 기록됐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크게 악화한 탓이다. 28일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저무는 신묘년...김정일 이후 북한 어디로...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공전 앞 광장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에서 침착한 표정으로 운구차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일 영결식 김정은·장성택 영구차 호위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사망 11일 만인 28일 오후 2시 평양 금수산기념공전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로써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됐던 1974년부터 시작된 37년간의 '김정일 철권통치'가 마감됐다. <관련기사 5면>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 영결식 행사는 예초 오전 10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날 밤부터 평양에 내린 눈 때문에 4시간 정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방송매체는 새 지도자인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 앞에서 호위하며 등장하는 장면부터 행사를 생중계했다.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에 이어

최고지도자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린 셈이다. 김 부위원장 뒤에 장성택 국방위원장이,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건넌편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8명이 걸으며 영구차를 호위했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사실상 이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영구차는 인민군 육

해·공군 및 노동적위대 명예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금수산기념공전을 빠져나가 거리행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 부위원장의 조화, 영구차, 주석단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은 금성거리~룡흥 내거리~비파거리~천리마거리~통일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향했다. 연도에서 주진들은 영구행렬이 지날 때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운구행렬은 금수산기념공전으로 들어가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대 명예의장대 사열을 재차 받았다. 의장대는 김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오른 가운데 분열행사를 거쳤다. 영결식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공전에 안치돼 영구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올 '가계 고통' IMF·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X100'이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31%로 최저지쳤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8.54%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경제고통지수는 7.5에 달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지난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경제고통지수는 7.5에 달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지난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상승률,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다. 올해의 경제고통지수는 1~10월 평균소비자물가 상승률 4.0(%)과 실업률 3.5(%)를 더해 산출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가 가계고통의 주범인 셈이다. 가계고통은 내년 상반기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진정되지 않거나 실업률이 악화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9면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건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설염, 인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기 센터가)

심·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